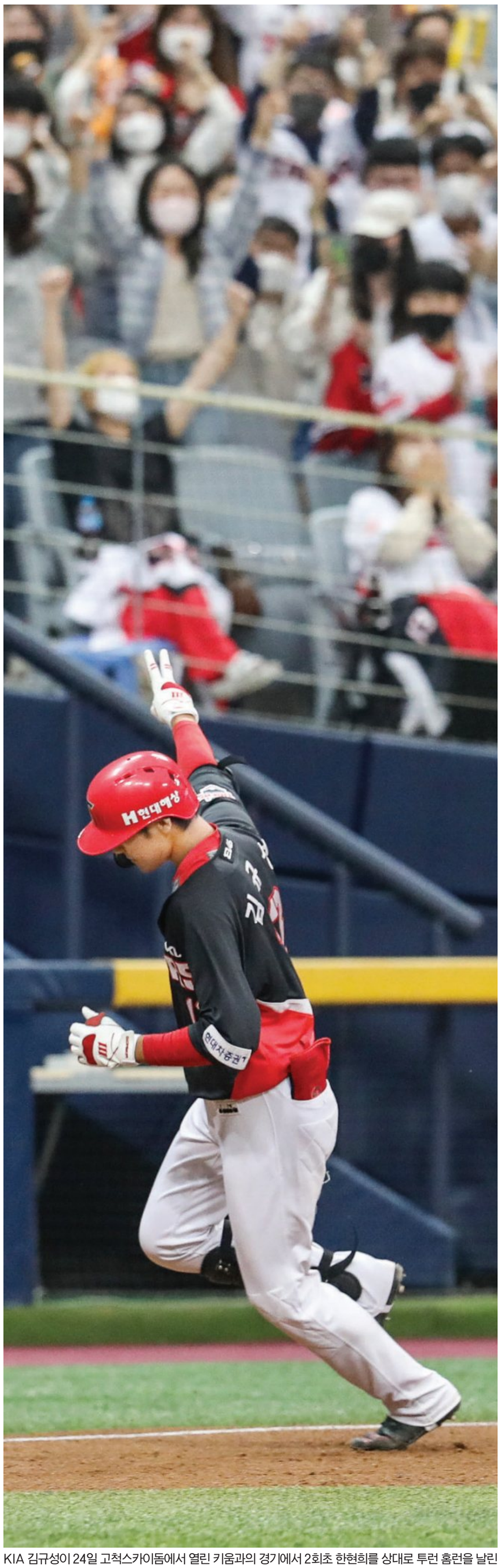
김규성, 시즌 첫 출전 첫 타석 초구 홈런 '펑'



KIA 김규성이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2회초 한현희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12안타 몰아쳐
키움에 14-2 대승 '위닝 시리즈'

KIA 타이거즈가 장단 12안타를 몰아치면서 키움 히어로즈와의 첫 만남에서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KIA가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시즌 3차전에서 김규성의 투런포 등으로 공세를 벌이며 14-2 대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정해영의 1점 차 세이브와 함께 5-4 승리를 기록한 KIA는 23일 경기에서는 답답한 공격력 속에 1-3 패배를 기록했다.

위닝시리즈를 놓고 맞붙은 3차전에서는 불붙은 KIA 타선이 상대 선발 한현희를 3회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면서 일찍 승기를 잡았다.

1회초 KIA가 상대의 실책을 더해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날 톱타자로 나선 류지혁이 유격수 김주형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한 뒤 김도영의 3루 땅볼 때 2루로 향했다. 폭투로 3루까지 간 류지혁은 1사 3루에서 나온 최형우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2회에는 큰 타구가 나왔다.

1사에서 김민식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이어 김규성이 시즌 첫 타석에 들어섰다. 김규성은 지난 22일 박찬호가 허벅지 통증으로 빠지면서 1군에 콜업됐고, 이날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초구에 방망이를 휘두른 김규성은 한현희의 144㎞ 직구를 우중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시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3회에는 나성범이 공격을 열었다.

나성범의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 최형우의 타구가 우측으로 빠지면서 2루타가 됐다. 최형우가 2루로 향한 사이 나성범이 홈을 밟으면서 3-0이 됐다.

황대인이 1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소크라테스와 김민식의 2루타가 이어졌다. 류지혁의 적시타까지 더해 KIA는 3회 타자일순하는 등 대거 6점을 뽑으며 9-0을 만들었다.

초반부터 일방적인 KIA의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선발 한승혁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화끈한 공세를 펼쳐준 야수들은 좋은 수비도 더해줬다. 2회 1사에서 류지혁이 송성문의 안타성 타구를 직선타로 만들어줬고, 나성범은 5회 선두타자 김주형의 타구를 낚아채면서 피안타를 막아줬다.

1회와 2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한승혁은 3회 선두타자 전병우에게 이날 첫 안타는 내줬지만 김주형과 박찬혁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용규는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4회 2사에서 실점이 기록됐다.

푸이그에게 첫 볼넷을 내준 한승혁이 송성문에게 우중간 2루타를 허용하면서 1-9가 됐다. 이어 이지영의 타구가 좌익수 키 넘으면서 1타점 3루타가 됐다. 전병우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아 추가 실점 없이 4회를 마무리한 한승혁은 5, 6, 7회 4개의 피안타와 폭투로 주자들을 득점권에 내보냈지만, 홈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7이닝 7피안타 1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KIA는 7회에도 타자일순의 공격으로 5점을 더해 14-2, 대승을 장식했다. 화끈한 화력 지원을 받은 한승혁은 2018년 10월 10일 한화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두산베어스와의 주중 3연전에서 연달아 1점 차 패배로 아쉬움을 남겼던 KIA는 키움 원정에서 2승을 더하면서, 3승 3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틀 연속 트레이드 … 기대 반 우려 반

키움 포수 박동원 영입에
김태진·10억원·신인 지명권 내줘
한화 투수 김도현 영입하고
투수 이민우·외야수 이진영 보내

KIA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화제의 팀'이 됐다.

KIA는 24일 "키움 히어로즈와 내야수 김태진(27)과 현금 10억원,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으로 포수 박동원(32)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성고 출신의 박동원은 지난 2009년 히어로즈에 입단, 프로 통산 11시즌 동안 91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7, 97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2021시즌에는 131경기에 나와 413타수 103안타(22홈런) 타율 0.249, 83타점 61득점을 만들었다.

KIA는 "박동원은 공수에서 이미 기량이 검증된 포수이다. 공격적인 볼배합으로 투수를 리드하는 유형이며, 강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어 도루저지율이 높다. 특히 공격에 장점이 많은 선수로 중심타선에서 팀의 장타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트레이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NC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김태진은 프로 7시즌 동안 334경기에 나와 타율 0.267, 8홈런 123득점 28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KIA는 앞서 23일에는 한화 이글스와의 트레이드도 발표했다.

KIA가 트레이드로 영입한 박동원. /연합뉴스

투수 이민우(29)와 외야수 이진영(25)을 내주고 투수 김도현(22·개명 전 김이환)을 데려오는 2대1 트레이드였다.

KIA가 영입한 김도현은 신일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9년 한화에 입단, 4시즌 동안 43경기에 나와 6.37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11패를 기록했다.

순천 효천고-경성대 출신의 우완 이민우는 지난 2015년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으며, 6시즌 동안 105경기에 출전해 평균 자책점 6.75로 12승 27패 1세이브 6홀드를 기록했다.

선린인터넷고 출신의 우투우타 이진영은 2016년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경찰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프로 통산 5시즌 동안 95경기에 나와 타율 0.189, 2홈런, 14타점, 20득점을 올렸다.

KIA는 "김도현은 평균 구속 140km 초반의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완투수로 완급 조절 능력이 탁월하며 변화구 구사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선발과 불펜을 모두 경험한 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가장 먼저 트레이드 물꼬를 튼 KIA가 이틀 연속 카드를 바꾸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새로 팀을 이끄는 장정석 단장은 적극적인 트레이드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스토브리그에서도 부지런히 카드를 맞춰 왔다.

포수 고민 속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박동원을 영입하고, 새로운 투수 자원도 더한 KIA는 전력 보강과 내부 경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 아래 지속적으로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선수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회'에 방점을 둔 한화와의 트레이드에서는 '카드 가치'를 놓고 아쉬움이 남는다.

스토브리그 내내 이름이 언급됐던 박동원의 트레이드 경우 일단 KBO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금과 2차 지명권 걸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KBO는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KIA 팬들도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선수인 만큼 무조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초보 감독'과 새로 손발을 맞추면서 의욕적으로 시즌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이른 트레이드 바람을 맞는 선수단 내부 분위기는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부천 꺾고 1위 탈환

K리그2 12라운드 1-0 승리
6경기 연속 무패·홈 7연승

광주FC가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1위를 탈환했다.

광주는 지난 2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2022 12라운드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 홈 7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부천을 끌어내리고 다시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경기 전까지 부천이 7승 2무 1패(승점 23), 광주가 7승 1무 2패(승점 22)를 기록하면서 두 팀은 이날 '1점 차' 선두 싸움을 벌였다.

기다렸던 마이키의 K리그 첫 골이 나오면서 광주의 1위 행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반 12분 광주 '브라질 듀오'가 선제골을 합작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오른쪽에서 공을 띄웠고, 중앙에 있던 마이키가 뛰어올라 머리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초반 광주에 막혀있던 부천은 26분 첫 슈팅을 기록했다. 친정을 찾은 김호남이 첫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36분에는 닐손 주니어가 오른쪽에서 때린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고 골키퍼 김경민이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이어진 부천 공격에서는 조수철이 슈팅을 날리며 광주를 흔들었지만 전반전은 1-0으로 마무리됐다.

광주가 엄지성을 중심으로 후반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12분 광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엄지성이 헤이스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연결했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 최철원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던 공을 오른손으로 쳐내면서 엄지성의 득점을 막았다.

후반 23분에는 광주가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부천 한지호가 오른쪽에서 때린 공을 골키퍼 김경민이 쳐냈지만 세컨볼을 잡은 조수철이 문전에서 슈팅을 날렸다. 실점이 예상되던 순간 광주 수비수 김현훈을 스친 공이 광주 골대를 벗어났고, 조수철은 땅을 쳤다.

앞선 안양 원정에서 자책골에 울었던 김현훈은 이번에는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 의도치 않게 팀을 구했다.

이후 양팀의 숨막히는 공방전이 전개됐다.

경기 막판 부천의 공세가 매서웠지만 '행운의 여신'은 광주 편이었다.

몇 차례 위력적인 슈팅으로 광주를 위협했던 조수철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골대를 벗어났다.

승장이 된 이정효 감독도 "운이 따른 경기였다"고 웃을 정도로 광주 승리에는 행운이 함께 해다.

하지만 이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한 대가다.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다. 많은 광주 시민분들이 찾아와주셨는데 좋은 경기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홈 7연승 소감을 밝혔다.

K리그 첫 골을 결승골로 장식한 마이키는 "힘든 경기였다. 상대 팀들이 광주와 경기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상대를 맞기 위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넣은 골로 팀이 이겨서 기쁘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3시즌 브라질의 같은 클럽에서 함께 뛰었던 헤이스와 합작한 골이라 더 의미가 있다.

마이키는 "헤이스가 작년부터 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적응해나가는 중이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도 헤이스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